

## COVER STORY

여성, 그대를 김세운 박사가 말한다

8

# 여성, 그대는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인 김세운 박사가 방한하였다.  
본 글은 지난 4월, 두란노에서 주관한 북토크 〈김세운에게 듣다, 성경적 남녀관계와 여성 리더십〉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구약, 예수님의 시대, 사도 바울의 문화 속 여성을 살펴보았다.

사진제공 | 두란노

### 여성, 그대를 구약, 그리고 창조세계에서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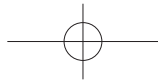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의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구약에서 여성은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인구조사 시 계수되지 않으며, 남성의 재산목록으로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이후 결과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성도 온 우주의 절대적인 형상이신 여호와와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진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통치권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만 그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공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짝, 파트너로 남녀가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말씀하시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돕

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관계에서 창조하셨지요. 그러나 출애굽, 광야, 심지어 신약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왜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왜 남자들의 재산목록으로 귀속된 존재로 그려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등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는데, 신명기 곳곳에서, 구약 속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기도 하고 일부다처제로 여성의 지위가 비하되고 종속적으로 변했죠. 이 왜곡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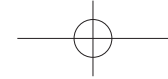
### 여성, 그대를 그리스도의 시대에서 말한다

그 왜곡이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구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니다. 신명기법에 근거하여 남편은 언제라도 여성을 이혼증서를 써 주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혼당한' 여성들은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막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들의 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 사회 정황은 엄격하게 남녀를 구분하고 여자를 종속시켰습니







## COVER STORY

여성, 그대를 김세운 박사가 말한다

10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새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구원이 남녀 모두에게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나, 성령이 남녀를 차별하지 않고 임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왜곡되어 있던 이스라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에도 여성은 여전히 계수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당시의 배경을 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 금지에 대한 가르침을 선포하셨고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등 여성의 인권과 보호를 위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음을 복음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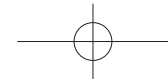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두 제자 속에 여성은 없는가에 대해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위치라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디만, 신학은 문

화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진리로 믿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문화적으로 양보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에 열두 제자를 세우셨지요. 열둘(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자,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모은다고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통치 하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나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부요함을 상속받고 충분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며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가장 크게 저항한 세력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새 창조의 열 두 지파 중 하나를 여성으로 세운다면 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심한 저항이 예상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설득력 있게 선포하고자 당시 관습대로 열두 남자를 새 이스라엘의 표본으로 세우셨습니다. 타락한 질서 속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새 질서를 소개하는 점진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남자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첫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여성, 그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말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 하나가 아니라 여자를 증언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는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사역 기간까지는 타락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남자들을 열두 제자로 세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부활의 순간에는 여성을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 시대에도 증언할 능력이 없던 여성이 신명기법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이에 자신감이 있었던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당시 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시고, 제자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조차 마리아를 통해 부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성들은 활발히 복음을 증거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들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울의 증언에서 더욱 자세히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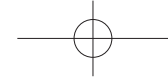
볼 수 있습니다.

**여성, 그대를 바울이 말하다**

바울 서신 중 여성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1, 14장의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 하라”일 겁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당시 머리의 수건은 문화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관습을 복음에 비취 판단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 유대교 회당의 예배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교 회당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각각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 모습을 보면, 유대 회당의 예배와 달리 파격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COVER STORY

여성, 그대를 김세운 박사가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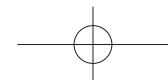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은 남자만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임재하셨고 예언의 능력과 다양각색의 은사도 동등하게 주셨죠. 당대에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 여자가 기도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리스도인 남녀가 한 방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교회 밖에 알려지면서 세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혼음하고 자녀를 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들끓는 비난 속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라고 독려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 즉 복장을 단정히 하라고 권고한 것이지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외부의 교회 비판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손상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살던 시대 상황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복음을 온전하도록 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남녀 동등성과 상호주의 원칙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무오'는 성경 단어의 무오가 아닌 성경 가르침의 무오를 의미합니다. 토씨 하나도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문자주의식으로 성경을 보고 율법주의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성도의 삶에 정확무오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은 여성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쓰며 앞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은 고전 14장, 딤후전 2



장 두 군데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벗어나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다.

### 여성, 그대를 오늘날 말하다

역사상 탁월한 여성 리더십이 발휘된 경우는 드뭅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린 영국의 총리인 마가렛 대처, 벤구리온에 이어 이스라엘의 수상이 된 골다 메이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었던 사회는 그 역사가 짧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한 정의마저 명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성의 판단에 의해 리더십이 정의되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단적인 예로, 남성은 단숨에 힘을 폭발하는 데는 강하지만, 동일한 힘을 지속적으로 길게 사용하는 것은 여성이 강합니다. 여성과 남성은 강하고 약한 존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에 리더십 또한 다르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리더십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와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다릅니다. 남성의 리더십이 강한 카리스마라면, 여성의 리더십은 다른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남성의 강한 리더십이 힘을 발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성의 섬김과 설득, 인내심으로 그 힘을 지속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리더십이 다를 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IA의 어느 교회가 남자들만 장로로 세우다가 처음으로 여자를 장로로 세웠답니다. 처음에 남자 장로들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 장로들만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여자 장로들이 생기니 싸움 일이 없어졌다며 진작 세울 걸 그랬다고 했답니다. 이것은 여성의 리더십이 상황과 환경의 화

합을 도모하는 데에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리더십과 남성의 리더십은 이렇듯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남성우월주의, 남성 주도적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역할만 수행했습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행사할 기회도, 그런 훈련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지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 생각합니다.

여성을, 여성의 리더십을 서신서 일부에 국한시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폭넓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대원칙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비취 그 뜻을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세운

서울대학교, 맨체스터대학교, 튀빙겐대학교 등에서 수학하고, 케임브리지의 틴데일 라이브러리에서 연구하였으며, 맨체스터대학교에서 PH.D.를 받았다. 그 뒤 누차 튀빙겐대학교에서 HUMBOLDT 연구원으로 연구하였고, 싱가포르와 미국 칼빈신학교, 고든코넬신학교, 풀러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신약신학 교수 및 한인 목회학 박사 과정 담당 부학장직을 역임한 후, 지금은 신약신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저서로 『바울 복음의 기원』, 『바울 신학과 새 관점』, 『그리스도와 가이사』,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와 바울』, 『주기도문 강해』, 『요한복음 강해』, 『빌립보서 강해』, 『고린도전서 강해』, 『칭의와 성화』 등이 있다.

※ 본 내용은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2016, 두란노)을 통해 더 깊이 보실 수 있습니다.